

§ 교회 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의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일 Ⅱ

(요 9:1-3)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이 성전 문 앞에서 맹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선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성전 문 앞의 맹인에게 동전 한 닢을 던져주면서도 굉장한 구제를 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쌍한 거지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해 주심으로 맹인이 완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3. 고통의 의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 9:3하)

날 때부터 맹인이라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실까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값입니까? 부모 죄값입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의 생각은 전생에 죄가 있을 때 이생에까지 온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값이 자식에게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출 20:5).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에게도 복을 끼칩니다(민 14:18).

인간이 자기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본문에서 '자기 죄값인가? 부모의 죄값인가?' 하는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를 다 거부하신 것입니다(3절).

예수님은 맹인이 된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맹인을 고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할 때에 너무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의 불행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불행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 불행이 오는 이유

(1) 죄값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는 방법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통의 날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의 날을 주심으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의 때를 주십니다(히 12:5 이하, 시 119:67).

고난의 때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종

류의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내 죄값으로 온 고난이 아니라면 연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잘 찾아야 합니다. 죄와 허물은 빨리 고백하고 복을 받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2) 믿음을 주시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고후 1:9).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영적인 유익이 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히 5:8).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고 깨끗해지고 고상해지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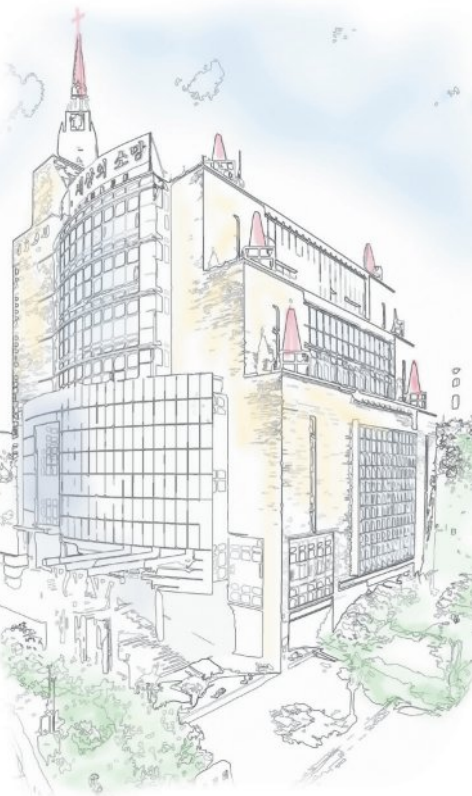
(3)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게 되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고후 1:4).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병들어보니 병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생깁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기에게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니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4)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려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벧전 4:12).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은 의로운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죄짓고 쫓겨 다니는 고난이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당하셨습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지 마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교사의 영성과 사명



손달익 담임목사

지난 2년 코로나 속에서 모두가 낮은 길을 걸어가느라 그 나름의 고군분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선생님들을 격려하며,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시작되는 한 해를 어떤 마음과 다짐으로 출발해야 할지, 작고 평범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싹을 틔워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 주님께 기대어 다시 시작해 봅시다.

1. 보는 사람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붙잡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새번역, 마가복음 6:34)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이 어떤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을 담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보는 교사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보아줍시다. 유튜브 속 댓글에 감추어진 아이들의 감정을 보아줍시다. 줌 화면 속 아이들의 표정에서, 혹은 덩그러니 이름만 놓여있는 빈 화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보아줍시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아줍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아이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 뒤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세상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보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아이들의 깊은 속마음을 진실하게 보아줍시다. 그리고 그 곁에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 듣는 사람

“그는 더욱더 큰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새번역, 마가복음 10:48b-49a)

눈먼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그에게 한 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흘려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에 가던 걸음을

멈추어 그를 불러 어찌된 일인지 묻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교사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들리지 않고 가장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 들립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쉴 새 없이 떠돌아대는 우리 아이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는 그들이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 없는 사춘기 아이들의 표정과 귀찮아하는 몸짓에는 아이들이 자란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잘 지냈냐?’는 인사에 금세 돌아오는 짤막한 대답, ‘잘 지내요!’에는 기승전결로 말하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의 긴 고민이 담겨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짧은 외침, 말없는 언어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말하는 사람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새번역, 마태복음 5:2)

예수님은 입을 열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림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작은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었습니다. 경계선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주는 말이었고, 때로는 아예 경계를 허무는 말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몸의 언어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격려하고 세우며 살리는 말을 하는 교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 아이들도 참 좋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마음을 물어

봐 주시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곳으로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안전한 세계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사는 사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새번역, 요한복음 1:14)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슬픔을 못 이겨 눈물 흘리기도 하셨고 극한 두려움에 떨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먼 곳에서 우리를 보기만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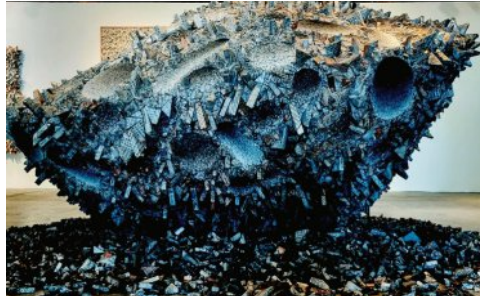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사람, 아이들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렵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함께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의 삶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살면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몸으로 가까이하는 것이 어렵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작은 모임을 통해서 더 자주, 더 진심으로 함께 만나고 거하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고민하고 애쓸 때, 분명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지 결정하고 형성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슬퍼하는 곳에, 아이들이 기뻐하는 곳에 그리고 아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곳에 함께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그리고 예수님처럼 함께 거하면서 저마다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다른 계절에 피어나는 꽃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렇게 여러분만의 꽃을 피워내어,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살아내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지 입체 작가 전광영

오는 4월 세계 최대의 미술 축제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열리면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홀수 해에 열리는 비엔날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이 연기되어 올해 3년 만에 열리게 되면서 그 열기가 한층 뜨겁다.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역사는 118년이며 우리나라가 처음 참가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이다, 이번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본 전시 외에 비엔날레 기간 중 베네치아 곳곳에서 각 나라의 대표 작가들이 현지 미술관과 이탈리아 귀족들의 저택이었던 팔라초 등에서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 전광영 집사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초대되어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냐에서 4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인전을 갖게 되었다. 이번 비엔날레 참여 작가는 214명인데 그 가운데 생존 작가는 불과 4명으로 전광영 집사님이 그 중의 한 명이다. 그래서 그의 콘타리니 폴리냐에서의 개인전을 많은 미술가들이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전광영 집사님은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엠블럼(Emblem, 紋章)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작가이며 유일한 작가이다.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난 전광영 집사님은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술대학을 진학한 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뼈를 깎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좌절과 고난의 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당시 이 목사님은 웨스



트민스터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이민자들을 돌보시며 잠시 이민 목회를 하시던 중이었다.

할머니께서 성경 책을 들고 시집 오시므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전광영 집사님 가정은 4대째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 미술 공부를 반대하던 부모님과 달리 할머니는 언제나 손자 전광영 집사님을 응원하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분이다.

전광영 집사님은 초기에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아 회화를 했으나 해가 가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해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한약방에서 한지에 약재를 싸아 매달아 놓은 것을 보고서 영감을 받아

염색한 한지와 고서적을 뜯어 아주 작은 입체 삼각형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하나 붙여서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고서에 담긴 역사와 한지의 결이 어우러져 신비함이 묻어난다.

2009년 문화예술상 미술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전광영 집사님은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해서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로 미국 연방 산하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 그의 작품이 영구 전시되어 있고, 그 후로 뉴욕 UN 본부에도 전시되었다. 이같이 세계적인 지명도에 힘입어 전광영 집사님은 올해 '한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오는 3월 24일 서울 역사 박물관에서 위촉식이 있게 된다.

2018년 10월에는 용인 수지구에 2천 300평 대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의 갤러리 'Museum Ground'를 개관하였는데 학연과 지연, 인맥이 없는 작가라 할지라도 재능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주며 재능있는 후학들이 미래에 큰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교회가 오랜 시간 분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의 힘이 되어 주신 전광영 집사님이 앞으로도 왕성한 작가 활동을 하며 한국을 빛내는 세계 속의 예술가로 우뚝 서기를 응원한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2022 사순절 캠페인



1. 회개와 기도의 시간
2. 한 끼의 식사, 주님의 몫으로!
한 잔의 차, 이웃의 몫으로!
3. 문화 절제 · 탄소 금식
4. 하나님의 복음 증거

우리 교회는 2022년 사순절동안 4가지의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1. '회개와 기도의 시간'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지면서 우리의 영적 점점의 시간을 갖는다.

2. '한 끼의 식사, 주님의 몫으로!'

'한 잔의 차, 이웃의 몫으로!'

한 끼 이상의 음식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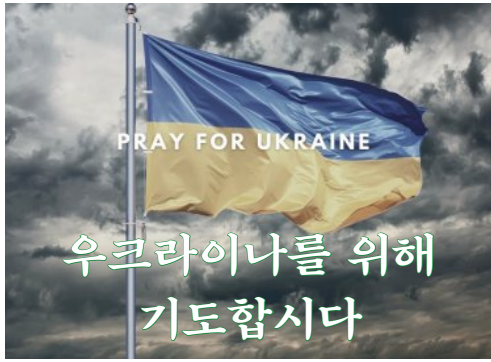
3. '문화 절제, 탄소 금식'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일상을 회복하고

탄소 발생을 줄여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회복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는다.

4. '하나님의 복음 증거'

성도들의 사명인 복음 전도의 정신을 되찾는 기간이 되도록 한다.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한지원 심준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옥준용 장하랑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주차 안내

교회의 정상화 및 방역단계가 완화에 따라 예배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차 원칙
 - 장기(종일)주차 : 지상 1층, 지하 3층 (대상 : 직원, 교역자, 종일 봉사자)
 - 예배 시 주차(각 예배시간) : 지하 1, 2층 (찬양예배 제외)
 - * 지하 1, 2층 2열 주차 앞 열 차량은 예배 후 반드시 출차(또는 이동)하여야 한다.
2. 주차 방법
 - ① 안쪽부터 주차하기
 - ② 건물 기둥 중심으로 백미러가 닿을 듯 주차하기.
 - ③ 주차라인 중앙에 주차하기

2022 성경암송대회

2022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2(토) 일반부 본선
11.13(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 2022 순례자 캠페인 -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



순례자는 2022년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참여 방법

1. 내가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에 관한 글이나 인증 샷

2.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환경운동), 비치코밍(beachcombing 해변 쓰레기줍기) 등 MZ세대의 친환경운동 인증 샷

* 참여 기간 2022년 4월 22일(지구의 날)까지

*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소정의 친환경 제품을 드립니다.

* 보내는 곳

순례자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동 정

■ 1교구 정철웅 집사(고려대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난민과 현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19일(토) 폴란드로 출국했다.

■ 떡 제공 : 9교구 한상준 집사 · 임명숙 권사 가정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일상에서 반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지와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보살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에 평화와, 산불 피해 지역에 회복과 복구되게 하시며, 코로나바이러스 시대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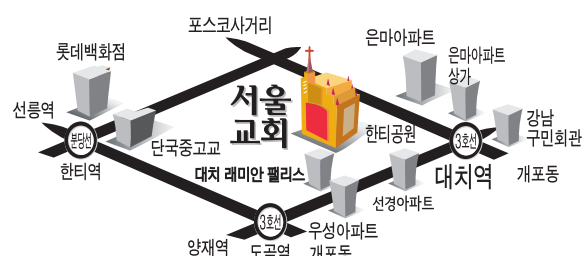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21일	월	수 18-19		느 8-13	
3월22일	화	수 20-21		에 1-10	
3월23일	수	수 22-24		욥 1-6	
3월24일	목	삿 1-3		욥 7-13	
3월25일	금	삿 4-6		욥 14-20	
3월26일	토	삿 7-9		욥 21-28	
3월27일	주일	삿 10-12		욥 29-34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